1113
Cour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1호 11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1 호 (259)
1964년 11월 (상)

차 례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직업 동맹의 역할

김 왈 룡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 강화하는 것은 직업 동맹 단체들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영웅적 로동 계급이 창조한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로서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 온 군중적 혁신 운동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묶어 세우며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애국적 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가 훌륭히 구현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에 철저히 의거하고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당과 대중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에 확고히 기초하고 있다.

인민 대중에 대한 깊은 신뢰와 혁명적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은 항상 우리 혁명 위업의 성과와 승리의 기본 열'쇠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김 없이 동원하는 데서 찾았으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온갖 난관을 타개하면서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얻어진 대중 속에서의 우리 당의 확고한 위신과 신망, 당의 강철 같은 통일과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체계의 확립, 정책과 로선 수립에서의 당의 과학적 예견성과 그 집행에서의 원칙성, 혁명적 전개력은 근로 대중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당의 의지와 사상을 자기들의 것으로 접수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로 동요 없이 전진하게 하였다.

그리 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은 유감 없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축적된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에 기초하여 위대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발생 발전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와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가 있은 이후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당 사업을 사람과의 창조적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와 모든 초소를 포괄하는 전 인민적 운동으로 확대되였으며 그것은 천리마 직장, 천리마 공장 운동으로 발전되였다.

금년 9월 말 현재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는 공업 부문에서만 하여도 105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 25만여 명을 망라한 1만 1, 618 개의 작업반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받고 159 개의 작업반이 2중 천리마의 영예를 지니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은 더욱 훌륭히 발휘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선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높은 혁명적 열의와 집체적 창발성을 발휘하고 자기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면서 기술 혁신 운동을 부단히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을 증대시키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있다.

공업 부문의 1,059 개의 천리마 작업반을 료해한 데 의하면 여기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도 천리마 칭호를 받기 전 1 년 간에 비하여 근 4 배에 달하는 창의 고안, 발명, 합리화안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였으며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다른 작업반들에 비하여 평균 40% 이상을 더 높이였다.

또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근로자들을 경제 관리에 자각적으로 인입시키는 대중적 경제 운영의 방법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으로 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당 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성원들을 당의 사상 의지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당 정책을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하고 작업반을 하나의 사상 의지로 단합된 붉은 집단으로 꾸려 나가고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념원에서 출발하여 뒤떨어진 집단과 사람을 도와 전반적 앙양을 일으키는 것을 고상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 하여 작년도 한 해 동안에만도 2,000여 개의 천리마 작업반이 3,800여 개의 작업반을 도와 주어 선진적 수준에로 끌어 올렸으며 그 중 543 개의 작업반이 영예로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어제'날의 락후 분자가 선진 분자로 교양 개조되고 있으며 뜨거운 동지애로써 동지들을 교양하고 도와 줌으로써 자기의 집단을 붉은 집단으로 꾸리는 참된 공산주의 교양자들의 대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 든 문제의 하나인 인간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

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되여 가고 있다.

실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앙양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공고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웅대한 7 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결정적 시기에 들어 섰다.

오늘 우리 인민 앞에는 7 개년 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겨야 할 전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더우기 최근 우리 당은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투쟁하여야 할 중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개 도에서 수행하여야 할 공업, 농업 부문 등의 10 대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앞에 제시된 이 방대한 과업은 전체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켜 그들의 열의를 고도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거대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사정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천리마 작업반 운동 자체 발전의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층 심화 발전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생활 원칙이 구현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뿐만 아니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작업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의 사상 의식과 혁명적 열의가 앙양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 운동 초기의 지도 체계와 지도 방법으로써는 결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개선 강화함으로써만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항구적 운동으로 옳게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직업 동맹 단체들의 지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수공업적으로 진행하거나 행정 실무적 처리로서 대치시킬 것이 아니라 구체적 면에까지 파고 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함으로써 이 운동이 인민 경제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관리의 훌륭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학교로서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직업 동맹의 지도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그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중요한 본신 임무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직업 동맹의 임무는 로동 계급을 단합하여 자본가 계급의 정권을 전복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그러나 로동 계급이 주권을 장악한 사회주의 하에서의 직업 동맹은 정권 기관과 리해 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당과 국가가 준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로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학교로 된다.

정권의 주인으로 된 로동 계급의 진정한 리익은 오직 인민 정권을 공고 발전시키고 나라의 경제와 문화 건설을 촉진시킴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 경제 기관 일'군들과 직맹 일'군들은 다 같이 공화국을 부강하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김 일성 선집 제 2 권, 395 페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바로 직업 동맹의 이러한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때에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도, 생산 보장도, 절약 사업도, 로동 보호와 후방 생활에 대한 문제도 모두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9 차 전원 회의에서는 직업 동맹 단체들이 사회주의 경쟁의 가장 높은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자기 활동의 중심 고리로 튼튼히 틀어 쥐고 이것을 확대 발전시키며 이 운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력량을 집중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 운동의 질적 수준을 한 계단 높이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는 것도,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결국은 기술 혁신을 어떻게 더 잘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경제 형편은 전후 복구 건설이 진행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르며 또 5 개년 계획을 수행하던 시기와도 다르

다. 과거에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예비를 얻어 낼 수 있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비약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과 기술적 진보 없이 대중의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부단한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이 집단적인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술 혁명 수행에서 영예로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맹 단체들이 천리마 기수들에게 기술 혁신이 가지는 의의와 당의 방침, 그 수행 방도를 명확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창의 고안 및 발명, 합리화 운동에 정력적으로 달라붙어 집단적 지혜와 창발성을 고도로 발휘함으로써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기술 장비를 부단히 강화하고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은 창조적이며 심오한 탐구를 요하는 사업이므로 자력 갱생의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직맹 단체들은 모든 운동 참가자들이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새 기술 도입을 위한 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극복하고 일단 시작한 기술 혁신은 끝장을 내도록 투쟁함으로써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 있게 생산 보장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반 간 련합 혁신 운동》은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는 효과적인 형태의 하나이다.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 천리마 기수들은 이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면서 작업반 간의 협조와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3 배에 달하는 각종 기술 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였으며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모두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직맹 단체들은 이러한 경험을 본받아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는 작업반 간 련합 혁신 운동을 더욱 광범히 조직 전개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시키고 생산에서 부단한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보다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서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로동자들이 강의한 의지와 함께 선진적인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며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급속히 높일 것을 요구한다.

직맹 단체들은 모든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이 기업소 내의 성인 교육과 기술 기능 학습 체계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며 개별 기능 담당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고 기계 설비에 정통하며 그들 속에서 다기능공, 고급 기능공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기수들은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

직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들에서 로력 조직을 잘 하고 로동 규률을 강화하여 로력을 극력 아껴 쓰며 기계 설비를 애호 관리하고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 온갖 랑비 현상을 배격하고 오작 불합격품을 근절하며 외화를 극력 절약하고 원단위 소비 기준을 계통적으로 낮추며 적은 자재로 더 많은 기계들과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 경제를 더욱 높은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며 원가를 낮추고 가까운 년간에 종업원 1 인 당 생산액을 2 배 이상으로 높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중요한 의의의 하나는 그것이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이며 대중을 기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데 있다.

직맹 단체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계획 작성과 생산 조직 사업에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참가하도록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발전된 기술과 복잡한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업 관리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천리마 작업반 운동 과정에서 창조되였고 발전된 직일 작업반장제, 내부 채산제, 자체 정량제 등 새로운 대중적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을 모든 작업반에 보급 일반화함으로써 전체 천리마 기수들로 하여금 재능 있는 관리 일'군으로 능숙한 조직자로 부단히 육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통하여 전체 군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며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건히 묶어 세우는 것이다.

전체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본질적 요구로 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생산에서의 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데서 종전의 사회주의 경쟁과 중요하게 구별된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 제 1 차적 의의를 부여하면서 모든 사업을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를 개조하며 생산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 의식이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기초한 것이다.

만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단순한 증산 경쟁 운동으로 취급하면서 생산 일면에만 치중하고 집단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생산에서의 혁신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미 달성한 성과도 계속 공고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직맹 단체들은 응당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의 중심을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데 두어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이 운동 참가자들의 일시적인 흥분과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확고한 공산주의적 신념과 세계관에 기초하여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 운동을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운동으로 옳게 끌고 나갈 수 있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도 사상 동원 사업을 선행함이 없이는 이 운동 참가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성과적으로 발양시킬 수 없다.

직맹 단체들은 근로자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계속 반복 해설 침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운동에서 창조적 지혜와 창발성을 더욱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키고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며는 견결한 혁명 투사로 교양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 전통 교양을 우리 나라 혁명 운동사와 결부시켜 폭 넓고 깊이 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천리마 기수들이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 과학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관철할 뿐만 아니라 군중 속에서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 선전하는 능숙한 정치 선동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 문화 유산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와 인민, 자기 계급과 자기 당을 사랑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 남반부 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이 달성될 때까지 견결하게 투쟁하도록 계속 혁명의 사상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교양하며 혁명적 락관주의를 주입함으로써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강화하여 안일과 부화,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근절하고 집단주의 정신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며 모두가 높은 인간성과 문화성을 소유하고 건강한 체력을 가진 우리 시대의 새 인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 교양에서 가장 위력한 방법은 긍정적 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승리한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기수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긍정적 모범들이 도처에서 속출되고 있다.

직맹 단체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희귀한 사건에만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착실하고 꾸준하게 일하며 더 많이 생산하고 절약하는 긍정적 모범들을 널리 보급 일반화하여야 한다.

직맹 단체들은 대중 속에서 널리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모범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지지하여 주며 특히 근로자들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긍정적인 싹들을 보급 일반화하는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반들에서는 뒤떨어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짜고 들어 교양하며 천리마 기수들이 창조한 인간 교양의 다양한 방법과 경험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모든 작업반들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직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직맹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성심 성의로 일하도록 정치 사상적으로 더욱 단련 육성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하나의 단합된 붉은 가정으로 묶어 세우며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두가 서로 돕고 밀며 이끌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한 계단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 대한 지도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높으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오늘 그의 지도 수준을 높임이 없이는 이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없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직맹 단체들의 지도 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이미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받은 작업반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들은 하나의 사상 의지로 단합되여 로동과 생활에서 공산주의적 기풍을 발양함으로써 대중의 모범이 되고 있는 붉은 집단이다.

오늘 1만 1,600여 개의 천리마 작업반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이 운동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 하에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직맹 단체들은 모든 천리마 작업반들이 달성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리마 작업반 내의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직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장, 직맹 분초급 단체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들을 작업반의 전반적 사업을 잘 조직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고착시키며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한 계단 높이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나라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촉진되여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과 사상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작업반 핵심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천리마 작업반을 옳게 끌고 나갈 수 없다.

직맹 단체들은 책임 간부들이 작업반 핵심들을 개별 담당하여 교양하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당 정책 교양과 기술 실무 교양을 항상 생활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강습과 경험 교환회를 수시로 조직하며 특히 천리마 기수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우수한 경험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경제 관리 지식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 리론과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핵심들을 군중 공작 방법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인간 개조 사업을 촉진시키며 천리마 작업반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 기본 고리의 하나이다.

직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내 핵심들에게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군중 사업 방법을 깊이 체득시키는 동시에 천리마 기수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천리마 기수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선구자로, 참된 공산주의 교양자로 되게 하며 그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모범이 되고 한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을 교양 개조하며 모든 작업반을 하나의 붉은 공산주의적 집단으로 꾸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천리마 작업반 성원들을 고착시킴으로써 모든 천리마 작업반원들이 자기 대렬을 공고히 하고 계속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의 질적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며 그의 영향 하에 모든 작업반들을 천리마 작업반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더욱 많은 군중이 참가할 때에 전진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동력으로서의 자기의 힘을 더욱 훌륭히 발휘할 수 있다.

더우기 혁명을 완수하며 전체 근로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강력한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이 운동의 본성 자체가 대중화를 요구한다.

직맹 단체들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도록 하며 특히 주도적 부문과 기본 생산 부문들에서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본질과 그의 정치 경제적 의의, 이 운동에 대한 당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운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적으로 타산된 정확한 전망적 결의를 가지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천리마 작업반 칭호 수여를 위한 요구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천리마 작업반 칭호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으로 되는 영예롭고도 고상한 칭호이다.

직맹 단체들은 일시적인 생산 성과나 어떤 개별적인 업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집단이 하나의 사상으로 단합되며 로동과 생활에서 공산주의적 기풍을 높이 발양하는 동시에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원가를 계통적으로 낮추고 사고를 내지 않으며 모든 성원들이 기술 기능 및 문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함으로써 대중의 모범이 된 그러한 집단과 성원에게 천리마 칭호가 수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천리마 작업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더욱 강화하며 천리마 기수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영예와 긍지를 북돋아 줌으로써 이 운동을 계속 성과 있게 끌고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직맹 단체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청산리 방법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지도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형식주의를 극복하며 이 운동을 계속 공고 발전시키는 기본 고리로 된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천리마 기수들 속에 깊이 들어 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 침투하며 그들의 결의 실행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주는 등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한 개 단위에 내려 가 전형을 창조하고 그를 전반에 보급 일반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 사상적으로 훌륭히 준비되여 있을 때만이 청산리 방법을 더 잘 관철할 수 있으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직맹 일'군들은 당의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그리고 필요한 경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 동맹의 전투력의 원천은 당의 령도에 있으며 각급 직맹 단체들은 당의 일상적인 지도 통제를 충실히 받음으로써만 자기 앞에 부과된 본신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직업 동맹 단체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진행 정형을 당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당이 준 방향과 결론에 근거하여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이 운동의 생활력을 계속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한 계단 높임으로써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풍모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김 진 택

우리는 아름다운 인간들로 부자가 되였다. 이것은 로동당 시대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측면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감격적인 공산주의적 미행의 주인공들이 도처에서 속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 개조의 위대한 흐름 속에서 사회의 전체 성원들의 정신적 풍모는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수년 전에 비하여 사람들의 일하는 솜씨, 사람들의 사는 본새도 많이 달라졌다.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사업 총화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오늘 우리 당은 근로 대중을 낡은 사상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어려운 사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고 지적하였다.

이 결론의 정당성은 그 때로부터 3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실생활에 의하여 더욱 확증되였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은 오늘 더욱 심화되였으며 더욱 폭 넓어졌다.

이러한 형편에서 새 인간들의 정신적 풍모를 리론적으로 개괄하는 문제가 절실한 과업으로 나선다. 이것은 인간 개조의 위대한 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건설 위업 전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절실한 요구로 된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철학 리론 전선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될 것이다.

철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분야에서도(물론 여기에서는 형상화를 통한 개괄이 문제로 된다)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새 인간들의 풍모를 신문 기사로써 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새 인간들의 풍모에서 발현되는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절대로 요구된다.

우리 시대 발전의 본질적 요구를 표현하는 특징들을 옳게 인식한 경우에라야만이 새 인간들의 풍모를 정당하게 그리고 더욱 생동하게 그릴 수 있다.

새 인간의 풍모를 일반화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데 비하여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새 인간들의 공산주의적 미거를 취급하는 글들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나 그들의 풍모를 리론적으로 개괄하고 일반화한 론설은 거의 없는 형편에 있다.

물론 이 사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두 사람의 재간으로 해 치울 수 있는 사업도 아니며 하루 이틀에 자리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사회 과학 부문의 많은 학자들과 작가, 예술인, 기자, 편집원들이 이 사업에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접촉과 연구를 거듭해야 하고 자료를 수집, 정리해야 하고 천리마 기수들과 더 많이 상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옳은 방법론이 필요하다. 과학적 방법론이 없이는 개괄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이 있을 수 없다.

새 인간의 정신척 풍모를 일반화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신 도덕적 기질의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규정 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옳은 방법론에 립각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첫째로 제기되는 것은 우리 나라 도처에서 나타나는 수 많은 혁신자들, 천리마 기수들의 행동에서 표현되는 개별적 현상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거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특징들을 추상해 내는 귀납법에 의거하는 것이다.

각이한 분야에서 출현하는 개별적 혁신자들의 행동과 사고 방식,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 하여 이 개별적 인간들의 행동이 어떤 특징들로 호상 련결되여 있으며 그들의 사고와 품성에서 무엇이 본질적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자면 실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

어느 한 천리마 기수의 특징을 가지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 인간들의 공산주의적 풍모의 특징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전형적인 풍모를 이러저러하게 체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완성된 공산주의자는 아닌 것이며 따라서 고귀한 품성과 더불어 부족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들의 우점과 부족점은 매 사람의 개성적 특질과 결부되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가령 충실한 사람이다, 동정심이 강한 사람이다, 혹은 의지가 굳은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어느 한 측면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각이한 성격적 특질로 이루어지는 많은 혁신자들을 계통적으로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 그래야 천리마 기수들 전반의 본질적 특징들로 되는 풍모를 구명해 낼 수 있다.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징이 또한 생활

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물론 매 사람의 생활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매 사람은 역시 혁명 사업의 일정한 초소에서 반복성을 떠는 일정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성격을 떠는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는 수다한 새 인간들의 생활을 연구하여야 한다.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로동 계급의 풍모만이 영웅적일 수는 없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그 어디에서 일하거나 마찬가지로 기적의 창조자들로 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돌아 가는 기대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은 만선기 날리는 배'전에서, 그리고 뜨락또르 달리는 협동의 포전에서 각이한 사업, 각이한 공정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름다운 공산주의적 인간 풍모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특질이 특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빛을 뿌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사업이란 어느 특정한 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각이한 부문의 수다한 천리마 기수들과 상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평범한 인간, 그러나 일에 달라붙어서는 비상한 열의와 창발성, 용감성을 나타내는 각이한 특질의 인간들을 찾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작업을 함으로써만 우리는 례컨대 동지애, 당에 대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지, 로동에 대한 성실성… 등을 소유한 새 인간의 특징을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증할 수 있다. 동시에 같은 동지애라도 바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지애의 특성과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사회주의 하에서 일반적으로 론의될 수 있는 도덕적 범주와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하는 것을 생동하게 표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총체적인 성격과 풍모를 규정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렇게 많은 개별적인 자료를 연구 분석하는 것은 새 인간의 정신적 풍모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작업이 없으면 천리마 기수들의 본질적 특징을 포착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피상적이며 추상적인 론의에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일정한 제한성이 있게 된다. 사람들의 공통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특징들을 추상해 내는 귀납법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을 불가피하게 일반적인 도덕적 범주에서만 보여 주게 된다. 이것은 아직 천리마 기수들의 풍모를 보여 주는 특징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이며 규정적인 역할을 노는가, 매개 특징들은 사람들의 풍모의 어느 측면을 규정해 주는가를 보여 주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물,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풍모도 그것을 발생 발전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천리마 기수들의 풍모를 규정하는 제 특징들이 력사적으로 어떻게 발생 발전하였으며 현 발전 단계는 어떠하며 또 그 장래성은 어떠한가를 보아야만 매

개 특징들의 역할과 의의를 인식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둘째로 제기되는 것은 력사적 고찰의 방법이다.

력사적 고찰은 인간의 정신적 풍모의 형성 발전에 작용한 제 요인들을 밝히며 이 요인들의 호상 작용과 그 발생 발전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정신적 풍모가 형성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이다. 매 사람의 정신적 풍모에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가 나서 자란 사회적 관계의 총체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거기에는 당대의 사회 제도와 민족-국가적, 당'적, 계급적 제 관계와 그것들이 력사적으로 발전해 내려 온 제 과정이 포괄된다. 여기에는 사람들에게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풍습과 민족적 기질이 포함되며 생활 환경(사회적 변혁을 포함하여)이 작용하며 당의 적극적인 교양 조치가 작용한다.

이 제 요소들은 호상 밀접히 결합되여 서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 인간의 총체적인 풍모가 형성되며 민족적 특성이 형성된다.

력사적 고찰은 이 제 과정에 대한 발생학적 견지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전제로 한다. 인간의 정신 도덕적 기질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런 연구에 의거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례컨대 민족적 특성과 같은 것을 해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형성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 력사적, 민족적, 당'적인 제 요인들을 정확히 고찰하여야 한다.

우선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특징들의 발생을 우리 혁명의 발전 과정, 우리 사회 제도의 발전 과정과 옳게 결부시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풍모의 형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곧 우리 혁명 발전의 산물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된 천리마 운동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천리마 운동의 담당자로서, 그의 기수로서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민족적 특성에 옳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천리마 기수들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의 가장 우수한 전통의 계승자들이며 그 빛나는 구현자들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 량속이 천리마 기수들의 공산주의적인 특질 속에서 꽃피며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사람들의 성장을 연구할 때 특히 당의 교양적 활동에 대한 옳바른 고찰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새 인간의 형성은 물론 제도의 산물이지만 그러나 그 자연 발생적 산물은 아니다. 당의 목적 의식적인 교양적 활동을 떠나서 공산주의적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결합시키며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생산 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는 당의 방침을 떠나서는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형성 발전을 리해할 수 없다.

례를 들어 우리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는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경험과 생활 기풍이 생동하게 그려진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생활의 교과

서로 되고 있다. 오늘 천리마 기수들은 항일 빨찌산들처럼 살며, 배우며, 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그들의 풍모를 형성함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놀았다. 우리 혁신자들의 정신적 풍모에서 빨찌산들의 그러한 고귀한 풍모를 찾아 보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천리마 기수들의 품성과 작풍에는 또한 위대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구현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누구보다도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힘 썼다.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모든 사업을 청산리 방법으로, 사람과의 산 창조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품성이 형성되였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우리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의 형성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인이다.

이와 같이 혁명 전통 교양, 청산리 방법이 사람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놀았는가를 해명함이 없이는 천리마 기수들의 풍모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수 없다.

이리 하여 우리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볼 때 거기에 어떤 사회 력사적 제 요인이 작용하는가를 구명함으로써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발생학적 견지에서 력사적 고찰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새 인간의 품성을 시대의 요구의 견지에서 해명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시대의 요구의 견지에 서서 사람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고찰하는 것은 천리마 기수들의 품성을 일반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방법론적 문제로 된다.

시대의 요구는 인간의 정신적 풍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맑스주의는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가르친다. 영웅, 선진적 인간이란 바로 시대 발전의 본질을 반영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영웅들은 곧 우리 시대가 낳은 사람들이며 천리마 기수들은 바로 로동당 시대의 산아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질의 주되는 특징과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요구의 견지에서 그것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개인적 기질은 그것이 어떤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새 인간의 긍정적 특징으로는 될 수 없다. 그것은 낡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극복되고 말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들에게서 발현되는 어떠한 기질이 시대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것이 현재에는 미미하고 고착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새 인간의 긍정적 특징으로서 점차 고착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 서서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을 옳게 규정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시대가 요구하는 성격형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란 시대 발전의 본질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대중을 흥분시키고 대중의 최대의 관심사로 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대중에 의해서 느껴지며 그들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제기된다.

이러한 요구는 구체적으로는 당 정책에 반영되여 있다. 당은 시대와 력사 발전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자기 활동을 통하여 매 시기의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 과업과 목표를 규정한다.

당은 이러한 과업과 목표 속에 대중의 념원과 지향을 정확히 구현하면서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부른다. 우리 시대의 모든 변화 발전은 곧 우리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의 요구란 곧 당의 정책적 요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의 요구를 잘 알기 위해서는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이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변경시킨다. 사람들에게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질이 형성된다. 말하자면 당 정책적 요구 즉 시대의 요구는 그에 적응한 성격을 낳게 한다.

모든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 성격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영웅은 곧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원만하게 반영한 사람들이지 어떤 특종의 기질을 가지고 태여 난 사람들이 아니며 영웅 일반도 아니다.

리 신자를 놓고 생각해 보자.

그는 우리 사회에 흔히 있는 농촌 녀성이다. 그는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지고 있은 것도 아니며 남 다르게 유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면 뒤떨어진 사람들을 이끌어서 당이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부강한 사회주의 농촌을 이룩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정열을 바쳤다. 그가 휴식마저 잊으면서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 주고 깨우쳐 주기에 얼마나 가슴을 태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비록 소박한 농촌 처녀였지만 그의 소행은 청산리 교시가 있은 이후 농촌 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전형으로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로 되였다.

이러한 성격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당 정책적 요구를 깊이 아는 데 기초하고 있다. 당 정책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으며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 전체 근로자들의 관심사로 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새 인간을 리해할 수 없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천리마 기수들의 성격적 풍모를 정확히 개괄하기 위한 방법론 상의 측면들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풍모에서 발현되고 있는 주되는 특질들과 민족적 특성, 그 사회 계급적 본질을 정확히 해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인 것이다.

이 방법들은 호상 밀접하게 련관되여 있다. 그 중 어느 하나도 홀시될 수 없다. 이 세 가지 방법들에 정확히 의거해서 문제를 고찰할 때만이 일면성과 주관주의를 면할 수 있으며 도식화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시대적 요구의 견지에 서서 인간 성격을 고찰하며 또한 형상화한다면 그것은 도식화에 떨어지는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시대적 요구의 견지에 설 때만이 도식화에서 벗어 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의 견지에 선다는 것은 현실에 더욱 깊이 침투하고 현실 생활의 호흡과 맥박을 더 잘 느끼며 그 속에서 형성된 인간 성격을 생동하게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지에 설 때만이 현실적이며 전형적인 인간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현실의 요구 속에서 자라 나는 새로운 인간형을 열렬히 긍정하고 낡은 요소들을 신랄히 풍자해야 하는 당'적 립장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당의 령도를 받으며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의 성격을 특징화하는 것이 도식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

도식화는 결코 시대와 당 정책의 립장에서 문제를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대로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 하고 생활과 떨어진 그 어떤 곳에서 인간의 이러저러한 성격을 고안해 내는 데서 생긴다. 시대의 요구를 모르고 생활을 외곡되게 묘사하는 경우에 도식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우리는 바로 현실과 인간의 성격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하며 일반화하기 위하여 당의 정책을 더욱 심각히 연구해야 하며 시대의 요구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당의 정책적 요구를' 모르고, 시대의 요구를 파악함이 없이는 오늘 뿐만 아니라 래일을 내다 볼 수 없으며 그런 현실에서 산생되고 발전하는 인간 특징을 심오히 연구할 수 없다.

생활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영웅들을 정당하게 특징 지을 수 없으며 그들에 대한 성격 규정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으로 되게 할 수 없다. 실례로 시대의 요구의 립장에 서지 않고서는 리신자, 길 확실, 리 명석 영웅들과 같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 속에서 오늘의 영웅적 현실을 창조한 빛나는 시대적 성격, 시대의 전형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것을 높은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묘사, 일반화할 수 없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의 제 관계를 일반화하여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는 인간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전을 추상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정신 도덕적 풍모를 규정하는 이러저러한 특징들을 발생, 발전시키는 모든 요인들의 작용과 역할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 속에서 모범의 힘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현실적인 의의를 가질 수 없는 하나의 도식에로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은 결국 사람들의 행동을 고무 추동할 수 없다. 오직 생활에 튼튼히 의거할 때만이, 시대적 요구를 가장 철저히 반영할 때만이 우리에게 가깝고 평범하고 우리의 행동을 고무 추동할 수 있는 시대적 성격을 일반화할 수 있다.

이상에서 새 인간들의 도덕적 풍모를 일반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를 서술하였다.

말하자면 이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였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지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길이 아무리 멀고 거기에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걸어 간다면 목적지에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리마 기수들의 정신적 풍모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지체함이 없이 달라붙어야 하며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여 나가야 한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의 계속 혁신을 위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리 세 식

오늘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중요한 일환인 기본 건설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 건설에서의 새로운 혁신이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웅대한 7 개년 계획을 완수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기본 건설에서의 새로운 혁신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전반적 진행 과정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서 제기된 긴절한 문제이다.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 경제 발전 특히는 7 개년 계획 후반기 경제 발전의 요구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웅대한 7 개년 계획의 전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결정적 시기에 들어 섰다.

7 개년 계획의 전반기에 우리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강화하고 농업을 새로운 토대 우에 올려 세웠다.

금번 당이 제시한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은 이미 얻은 이와 같은 성과에 기초하여, 화학 비료, 강철 생산과 전기, 채굴 공업 등을 비롯한 기간적 부문의 생산 능력을 1966년까지 7 개년 계획 말 수준에 끌어 올림으로써 7 개년 계획을 기한 내에 완수하기 위한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7 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제기된 10 대 과업은 선행 단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의 핵심 부문들을 새 기술의 지반 우에 올려 세움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야 할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요구에 기초하여 설정된 과업이다.

10 대 과업이 지닌 이러한 임무는 후반기 기본 건설의 특수한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였다.

후반기 기본 건설은 우선 기술적으로 새롭고 복잡하다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이다.

7 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진행될 기본 건설은 10 대 과업이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이 산업 건설이다. 후반기에 진행될 이 산업

건설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공정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본 건설 앞에 기술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실지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 생산 및 구단광에 의한 제철 등의 건설 과정은 이것을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다.

후반기 기본 건설의 특징은 또한 건설에서 신설과 확장의 비중이 전반기에 비하여 높아진 데 있다.

7 개년 계획의 전반기에서는 3 개년 계획 및 5 개년 계획을 통하여 조성된 중공업 기지의 정비 보강이 건설에서 주되는 것이였는데 후반기에는 중공업 기지의 확장과 신설이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후반기 기본 건설에서는 또한 총체적인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한 개 대상의 규모에서도 전반기에 비하여 증대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또한 후반기 기본 건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과 인민 생활의 요구에 상응하게 건설을 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서 자체의 자재, 자체의 기술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과 후반기 기본 건설의 이러한 특징은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과 일대 비약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조국이 분렬된 조건에서,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대치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러한 정세는 경제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건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시기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우리 당은 건설 분야에서 전변을 일으킬 것을 제기하면서 다만 그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하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는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기본 건설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와 경험을 얻었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10월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건설을 공업화함으로써 세계를 경탄시킨 《평양 속도》, 《비날론 속도》를 창조하였으며 기본 건설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켰다.

사회주의 건설이 촉진됨에 따라 기본 건설에 대한 요구가 질량적으로 계속 증대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당은 1961년 3월 전원 회의에서 철재와 목재를 비롯한 자재와 자금, 로력을 절약하여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1963년 1월에는 전국의 기본 건설 관리 지도 체계를 개편하고 건설을 정규화,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기본 건설의 중요 부문들인 설계, 건재 생산, 건설 시공 등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 지도 체계가 수립되였으며 건설의 모든 부문들이 계약에 의하여 호상 제약하면서 활동하는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다. 이것은 기본 건설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건설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담보를 주었으며 건설 기술의 발전을 힘 있게 촉진시키고 건설물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 당의 정확한 기본 건설 정책, 그에 의하여 이룩된 거대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은 오늘 우리가 당의 의도대로 기본 건설 사업 전반을 혁신하며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7 개년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10 대 과업의 성과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업, 농업 부문의 건설 전반에 고려를 돌리면서 기간적 중공업 부문 특히 화학 비료, 강철 생산과 전기, 채굴 부문에 투자와 물질 기술적 력량을 집중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지난 시기 기본 건설 부문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요구에 대한 심중한 타산에서 출발한 당의 이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에서 새로운 비약과 거대한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로 된다.

기본 건설 부문 전체 일'군들이 당의 방침에 확고히 서서 10 대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면 무엇보다도 건설의 계획화, 건설 기술의 발전, 건설물의 질, 기업 관리의 개선 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선차적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은 계획화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 기본 건설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각 경제 부문들의 합리적인 균형과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빈 터에서 민족 경제의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매년 방대한 기본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시기 계획화 사업의 개선 문제가 강조되는 리유는 이와 함께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과,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건설 과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7 개년 계획 후반기의 기본 건설은 그 내용에서 새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자체의 자재, 자체의 기술로 건설되는 만큼 주객관적 조건, 투자의 선후차, 각 부문들의 속도와 균형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계획화 사업이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건설 분야에 새 관리 지도 체계가 확립된 사정과 관련하여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

물론 최근 시기 기본 건설 분야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그러나 계획화 사업은 아직 급속히 발전하는 기본 건설의 요구에 충분히 수응하지 못 하고 있다.

현시기 기본 건설의 계획화를 개선하는 사업에서 중심 내용으로 되는 것은 우리 당의 계획화 방침에 립각하여 기본 건설의 계획 작성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계획의 과학성과 구체성을 보장하며 건설의 집중화를 실현하여 조업 개시를 촉진하는 것이다.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으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실증된 원칙, 건설을 널어 놓지 말고 중심 고리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집중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 우리가 자신의 힘에 의하여 복잡한 현대적 경제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조건에서 당의 이 건설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일 우리가 이 원칙에서 리탈하여 계획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경제 건설 전반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는 당이 공업, 농업 부문의 10 대 과업에서 제시한 방향에 립각하여 화학 비료, 강철 생산과 전기, 채굴 부문 등을 비롯한 기간적 생산 건설에 투자와 물질 기술적 력량을 집중하며, 그 부문 내에서도 대상을 널어 놓지 말고 력량을 집중하여 한 대상씩 해결하며 생산 능력의 조업 개시를 촉진시켜야 한다. 한 대상 내에서도 시공 조직에서 선후차를 잘 가리며 선차적 공정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계획하며 특히 산업 건설 부문에서 한 개 생산 계통씩 집중적으로 시공해 나가는 방침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에서의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이 곳 건설자들은 전반적 조업에 선행하여 한 부문의 조업 개시를 보장함으로써 막대한 전력을 더 생산하였다.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설의 주객관적 조건, 투자의 선후차 등을 정확히 타산하여 계획 작성의 과학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확한 타산, 이는 계획 작성의 필수적인 전제이다.

기본 건설 계획화에서는 건설 대상에 대한 기술 경제적 타산, 시공의 물질 기술적 력량과 그 능력에 대한 타산, 제반 물질적 보장 조건에 대한 타산, 건설 전망에 대한 타산 등을 잘 하여야 한다.

계획 작성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의 초석인 건설 대상에 대한 기술 경제적 타산을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 건설주 기관들에서는 중간 시험을 거쳐 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술 과제를 작성할 것이며 설계 기관들에서는 그에 기초하여 반드시 계획 작성에 앞서 설계를 보장하고 이 설계에 확고히 립각하여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계획화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만일 건설주 기관들이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정확한 과학 기술적 담보도 없으며 경제적 타산도 확실치 않은 대상을 계획에 예견하고 건설해 줄 것만 기다린다면 이것은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계획 작성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각 도 건설 위원회를 비롯한 건설 분야의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 기계, 설비 등의 건설 력량과 자재, 대상 설비 등의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작전 및 전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전 계획 작성 단계에서의 이와 같은 타산은 시공, 설계, 건재 생산, 대상 설비 생산 등 각이한 부문들의 계획화가 기본 건설 계획이라는 하나의 종합적인 목적에 복종되도록 하며 건설 계획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설계, 시공, 건재 및 대상 설비 생산 부문 등 여러 부문 간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기관 본위주의적 요소를 근절하고 자체의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립장에서 기본 건설 계획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특히 보장 부문에서 기일에 대한 타산을 정확히 하며 시공에 설계와 설비 자재들을 결정적으로 선행시켜 건설의 정상화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도 건설 위원회를 비롯한 건설 기업소들에서의 전투 계획 작성도 건설 력량 및 보장 조건을 세밀히 타산하며 부서 간, 공정 간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는 기초 우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즉 예비안 토의로부터 계획 작성의 전 과정에 시공, 기술, 공무 동력, 로동 행정, 자재, 후방 등 모든 부서들을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며 그리 함으로써 각 부문의 전투 계획이 기업소의 건설 계획과 정확히 맞물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례하면 일정한 계획 기간에 진행될 건설 대상의 성격과 그 작업량에 따라 로동 행정에서는 로력과 직종 별 기능 발란스를 따지며 기술 부서에서는 설계 도면, 표준 조작법의 작성과 공구 지구 등 기술 준비 대책을 따지며 공무 동력에서는 필요한 기계 설비들과 동력 설비들의 능력, 기술 상태 및 소요되는 보수품의 량과 그 해결 방도를 따지며 또 자재부에서는 품종 별, 규격 별로 건재의 보장 방도를 따져야 한다.

이와 같이 계획화를 위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타산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전투 계획을 작성하며 그에 따라 매개 부문 별로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설 계획 작성에서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건설의 전망에 대한 타산을 예견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건설 생산의 특성은 착공에 앞서 설계와 대상 설비들의 물질 기술적 준비 단계가 1 년 또는 2~3 년의 긴 기간을 요한다는 데 있다. 이런 사정은 계획 단계에서 전망 계획을 고착시키고 그에 립각하여 설계와 중요 대상 설비의 제작을 계통적으로 선행시키는 엄격한 제도를 세울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전망을 구체적으로 타산함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우연성 즉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할 예비를 조성함으로써 계획화에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기계화 부문에서 예비 부대를 조직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며 높은 기동성을 갖도록 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계획화 사업에서 생산을 아는 사람이 광범한 군중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세운 계획을 반드시 군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 데 대한 당의 계획화 원칙을 계속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군중 토의를 준비 있게 또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하여 계획을 군중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서슴없이 제기하게 하며 계획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도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기본 건설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기본 건설의 부문 간, 공정 간의 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획 규률을 강화하는 문제가 건설의 정상화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특히 공업, 농업 부문의 방대한 10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오늘 그것은 매우 긴절한 문제로 되였다.

과학적으로 타산된 정확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건설에서 계획 규률을 보장하며 사업의 정상화를 달성하게 하는 중요 담보이다.

그러나 이에 면밀한 조직 사업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계획 규률은 준수될 수 없다.

그러므로 건설의 보장 부문들에서는 설계, 건재 및 설비들을 제정된 시일에 반드시 공급할 것이며 시공에서는 수립된 작업 공정 계획을 어김 없이 집행함으로써 건설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로 그리고 지표 별로 반드시 수행하는 엄격한 계획 규률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기본 건설 사업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건설의 공업화 방침을 견지하면서 계속 이 분야에서 전면적인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기간 우리는 당의 방침을 받들고 기술 혁신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3년에 조립식 건설의 비중은 산업 건설에서 25.5%, 주택 건설에서는 70.5%에 달하였으며 중요 건설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수직 운반 작업에서 91%, 콩크리트 혼합 작업에서는 87.2%로 제고되였다. 건재 생산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건재의 질이 제고되였으며 설계 사업에서도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낡은 수공업적 건설 방법을 퇴치하고 건설 전반에 걸쳐 새로운 조립식 건설 방법과 새 기계 기술을 도입 적용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진척에 따라 증대되는 기본 건설에 대한 질량적 수요를 종래 형태의 공업화만으로써는 원만히 해결할 수 없게 되였다.

지금 우리는 더 선진적이며 경제적인 새 구조, 새 건재, 새 건설 방법을 건설에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혁신 운동을 이 분야에서 강력히 전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시기 건설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촉진된 결과 건설의 기술 장비가 비상히 강화되고 기술자, 기능자 대렬이 크게 장성된 조건에서 건설 부문에서의 새로운 기술 혁신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였다.

만일 지난 시기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현 상태에서 더는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시기 기본 건설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의 기본 방향은 새로운 구조 도식과 건설 방법을 도입하여 자금, 자재, 로력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질좋게 건설할 데 대한 1961년 3월 전원 회의 결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당의 이 기본 방향에 립각하여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에 저애를 조성하고 있는 보수주의와 교조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미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여 새 기술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을 홀시하거나 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또한 종래의 비경제적인 낡은 방법을 고집한다면 건설에서 더 빠른 전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 풍토, 생활 풍습, 경제 발전 정도가 다른 남의 나라의 기준을 그 대로 도입 적용하거나 우리 나라 자연 부원에 기초한 창발적인 연구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건설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 운동의 광범한 전개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건설 기술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에서의 보수주의, 교조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설계 및 건설 과학 연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설계 및 과학 연구 일'군들의 복잡한 계산과 인내성을 요구하는 수다한 반복 실험과 시험을 통하여서만 건설에서 어떤 구조, 어떤 건재, 어떤 건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설계 및 건설 과학 연구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자들의 대렬 특히 각 부문 별, 전공 별 연구 핵심들을 꾸리며 과학 연구를 위한 물질 기술적 조건을 잘 지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과학자, 기술자들 자신이 건설 과학 연구 사업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키며 그의 질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내외의 기술 발전 정형에 항상 정통하며 그들 호상간에 과학 기술 교류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공 현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을 연구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여 그들과의 협동 연구를 강화하며 또한 건설에 자재와 설비를 제공하는 련관 공업 부문들과의 협동 연구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지금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하여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는 예비 응력 철근 콩크리트나 박막 구조, 새로운 강철 구조 등의 연구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우량한 강재와 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건설용 재료의 연구 및 생산을 완성해야 한다.

기본 건설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위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건설 현장에서의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이다.

우선 광범한 건설자 대중 속에서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적 창의 고안 운동에서 중심은 건설 작업을 기계화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건설 기업소들에서는 기계 공장에서 생산하여 제공하는 현대적 기계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창의

고안 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많은 중소형 기계들을 자체로 제작 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며 그 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기본 건설 부문에는 실로 수만대에 달하는 막대한 량의 각종 건설 기계 설비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리용률을 개선하는 문제는 새 기계의 도입에 못지 않는 큰 의의를 가진다.

3

기본 건설 사업의 새로운 혁신에서 건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건설물의 질은 그 수명을 연장시키며 리용 가치를 높인다. 만일 건설물의 질을 2 배로 높인다면 그것은 그만한 량의 건설을 더한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 수준이 비상히 높아졌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 조건에서 이것은 매우 긴절한 문제로 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지어져 있다. 건설물에 대한 수요가 일정한 정도 충족되였고 건설 기술 장비가 높아졌으며 또한 건설물의 질 제고에서 경험이 축적되였다. 이제는 우리들이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집행하는가에 그것이 크게 의존하게 되였다.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를 만들고 건재를 생산하며 건설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사상 의식과 기술 실무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건설 부문의 창조물은 한 번 쓰고 마는 소비품과는 달리 말 그 대로 백년 대계이다. 그런 만큼 비록 한 개의 부재, 한 개의 철근을 만들더라도 정성을 들여 잘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로동자들 속에서 기술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물의 질 제고를 위하여서는 기술 조직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건설 및 건재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실험실을 꾸리고 그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체 원자재들과 부재들을 실험하며 그 력학적, 화학적 성질이 설계 상의 요구에 적응한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에야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점차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공에서도 매 작업의 방법과 기능 수준이 설계 상의 기술적 요구를 만족시키는가를 실지 작업에 앞서서 과학적으로 시험하는 사업을 조직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설물의 질 제고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건설 작업의 공정들에 대한 정확한 표준 조작법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준 조작법을 이미 얻은 경험과 기술적 타산에 기초하여 잘 만드는 것인데 중요 공정들의 기술 조작법은 전문 연구 기관들과 시공 기관들이 협동하여 작성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리 하여 모든 로동자들이 반드시 작업 지시와 함께 설계 도면과 표준 조작법을 받은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감독 통제 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문 감독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자 대중을 이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대중이 규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작업의 질에 대하여 호상 관심하고 통제하며 서로 방조할 때 건설의 질은 더욱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건설 부문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서는 새로운 건설 관리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새 체계가 확립된 이후 기본 건설의 관리 운영 수준은 급속히 제고되였다. 즉 기본 건설 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가 강화되고 당의 방침에 따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되였다.

이제 문제는 기본 건설에 대한 통일적 관리 지도 체계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성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며 기업 관리 운영 수준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전국의 기본 건설 사업에 대한 작전 지휘부로서의 국가 건설 위원회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문제이다. 국가 건설 위원회의 협의제 기능을 더욱 높이고 전국적인 기본 건설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계, 건재 생산, 시공 부문 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새로운 건설 기술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며 건설 기준 및 지도서들을 작성 공포하는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 건설 부문의 중앙급 기관들에서 새 관리 체계에 상응하게 사업 방법을 개선하고 아래 단위를 구체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특히 지도국들은 깜빠니야와 문서 놀음에 매여 달릴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건설 기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업무 행정에 대한 지도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 건설 계획의 수행을 직접 내각 앞에 책임 지는 기업 단위인 각 도 건설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며 그가 자기의 기본 건설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새 체계의 요구에 상응하게 건설주 기관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전문 건설 관리 지도 체계가 확립되여 있다 하더라도 건설 대상의 기술 공정을 연구하고 기술 과제를 작성하며 건설을 주문하는 건설주 기관들의 높은 책임성과 적극적 방조가 없이는 기본 건설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는 복잡한 산업 건설을 원만히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대상의 건설들에서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그러므로 건설주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건설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기술 과제를 만들고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 합의들을 제때에 진행하며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감독 통제하는 강력한 사업 체계를 세움으로써 기본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새 관리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발휘시킴에 있어서 건설 부문의 모든 기업 관리 단위들이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사업에서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일 지방 건설 기관, 기업소들에서 우만 쳐다 보고 조건을 지어 주기만 기다린다면 새 체계의 우월성은 원만히 발휘될 수 없다.

기업 관리에서 지방 건설 기관 및 기업소들이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은 또한 그것들이 공업과는 달리 각이한 조건에서 각이한 대상을 건설하는 것 만큼 수시로 새로운 정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례하면 지방 건재 리용에서 돌이 많은 데서는 돌로, 석비레가 있는 데서는 석비레로, 나무를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서는 나무로, 공업 폐설물을 리용할 수 있는 데서는 공업 폐설물을 가공하여 건재로 리용한다면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줄 수 있다.

지방의 지대적 및 기후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에 적응하게 시공 조직 및 수송 조직을 적극 개선하며 지방 인민 경제 타 부문의 기술적 잠재력을 료해하고 건설 기술 발전을 위하여 그 도움을 받는 것 역시 극히 필요하다.

새 체계의 우월성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업 관리 운영 수준을 더욱더 제고하여야 한다.

모든 건설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시키며 이미 그 우월성이 증시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현물 평가제를 전반적으로 도입 공고화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본 건설 사업에 대한 관리 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지도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높여야 한다. 모든 지도 일'군들이 학풍을 세우고 당 정책과 경제 및 기술 지식을 연구 체득하며 해당 부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도 리론을 소유하고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 건설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물론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여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부문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고 전면적 기술 혁신을 일으키며 건설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관리 지도 수준을 제고한다면 기본 건설의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날 것이다.

기본 건설 사업에서의 새로운 비약은 10 대 과업의 수행과 나아가서는 7 개년 계획의 완수를 확고하게 담보할 것이다.

현시기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의 심화와 그 특징

김 화 천

현시기 전 세계 인민들 앞에는 단결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숭고한 혁명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상태와 그 특징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리론, 실천적으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의 력사적 지위를 규정하는 특징의 하나는 그의 부패성과 기생성이 심화된다는 데에 있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란 곧 기생적 또는 부패하여 가는 자본주의이며 따라서 사멸하여 가는 자본주의인 것이다. 제국주의 시기에는 사회 경제적 전진 운동을 자극하던 요인들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며 반면에 그 전진을 막는 새로운 장애들이 조성된다. 그리 하여 기술적 진보와 생산력의 발전이 지체되며 전면적인 정치적 반동이 대두하게 되고 문화와 사회 생활 령역에서 패덕과 타락이 지배하게 된다.

오늘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심각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에 고유한 이러한 부패의 경향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쇠퇴와 멸망을 촉진하는 내'적 과정으로 되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국에 대하여 말할 때 부패의 경향은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로골적이고도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억만 장자들과 그 사환'군들이 《영원한 번영》과 《나라의 부강》을 그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는 미국은 실제 상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에서 주로 경제적 령역에서 미 제국주의가 어떻게 더욱더 썩어 가고 있으며 그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게 된다. 이것은 경제에서의 독점 자본의 지배가 바로 미 제국주의의 실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만큼 심화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부패 경향의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미 제국주의의 대내외 정책의 본질을 옳게 리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

오늘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의 경향은 가일층 심각화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 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그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 령역에서의 독점 자본의 부패 경향의 심화는 무엇보다

도 만성적인 침체와 결합된 생산의 극히 완만한 장성에서, 물질적 생산 부문의 축감과 군수 생산 부문들의 일면적인 확대에서 그리고 사회 생산물의 기생적 소비와 랑비의 미증유의 증대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수년 동안 미국 독점 자본은 지난 전쟁 시기 혹심한 파괴를 입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독점적인 상품 공급자로서 자기의 경제적 지위를 현저히 제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조선 전쟁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그의 경제적 지위는 명백히 하강선을 긋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불안 상태에 휩쓸려 들어 가게 되였다.

경기 순환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생산 장성의 저조 상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빈번히 폭발하는 공황은 경기 순환의 주기를 단축시켜 생산의 침체가 만성적인, 지어 거의 상시적인 현상으로 되게 하고 있다. 례컨대 전후 년간에 1948~1949년, 1953 ~ 1954년, 1958 ~ 1959년, 1960~1961년 공황들이 련속 폭발되였으며 한 공황으로부터 다음 공황에 이르기까지의 간격은 계속적으로 감소되였다. 공황 후 생산 장성의 최고 수준도 감소되고 있는데 1948 ~ 1949년 공황 후에는 그것이 34%였다면 1953~1954년 공황 후에는 10%, 1957 ~ 1958년 공황 후에는 불과 8%였다(1948~1949년 공황과 1953~1954년 공황 사이에 비교적 그 주기가 길고 생산 장성의 최고 수준도 높은 것은 조선 전쟁과 관련되여 있었다). 공황의 빈번한 폭발은 많은 생산 부문들에서 공황 전 생산 수준을 미처 회복하기도 전에 새로운 공황에 휩쓸려 들어 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경기 순환에서의 이러한 극심한 난관은 생산 장성 속도를 저하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후 년간 미국에서의 공업 생산의 년 평균 장성률

1946 ~1950년 ………… 6.4%

1950 ~1955년 ………… 5.3%

1955 ~1960년 ………… 2.3%

보는 바와 같이 공업 생산의 장성 속도는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일련의 기간적인 공업 부문들—야금, 석탄, 자동차 및 기타 공업 부문들—그리고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이 절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목전의 생산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사태가 생산 설비의 현저한 부분을 녹 쓸게 하고 있으며 로동 능력을 가진 수 많은 근로자들을 만성적인 실업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 유지 수단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관변 통계에 의하더라도 현재 공업에서 생산 설비의 가동률은 전체적으로 80% 정도이며 일련의 생산 부문들에서의 설비 가동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처해 있다. 1962년에 전재 공업 부문에서는 그 생산 능력의 74%, 흑색 금속 공업에서는 불과 60%가 리용되였을 뿐이다. 이리 하여 미국의 년간 총생산액은 생산 능력에 비하여 무려 300 ~ 400억 딸라나 더 적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방대한 설비들과 생산 능력이 유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감소는 독점 자본이 제품의 생산을 량적으로 장성시키는 것보다 도리여 제품의 생산비를 저하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돌리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생산 능력의 《과잉》을 증대케 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생산 설비들의 방대한 《과잉》 상태는 새로운 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축감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정상적인 운동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 설비들의 이러한 《과잉》, 기업의 만성적인 조업 부족은 취업에서의 난관을 증대시키고 실업자 대렬을 격증시키는 등 극히 심각한 사회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매년 수십만의 로동자들이 현직으로부터 구축 당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압도적인 대다수에게는 거의 아무런 일'자리도 차례지지 못 하고 있다. 실업자 대렬이 얼마나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최근 수년간 이를테면 1957 ~1964년 기간의 그 동태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완전 실업자 대렬은 이 7~8 년 기간에 년 평균 293만 명으로부터 470만 명으로 즉 1.6 배 이상으로 증대되였다. 여기에 반실업자들을 합한다면 실업자 대렬은 천 수백만으로부터 지어 2천만에까지 달하고 있다. 케네디나 존슨도 인정한 바와 같이 실업 문제는 미국에서 최대의 난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결국 이 나라에서는 방대한 인원들이 사회적 유용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되고 있으며 많은 로력 자원이 생산 발전에 전혀 리용되지 못 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생산의 제 요소들과 가능성들을 리용함에 있어 사실 상 무능력한 존재로 되고 있는 것이다.

현시기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는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물질적 생산 부문이 상대적으로 축감되고 그 대신 비생산 부문이 확대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생산의 침체와 제품 실현에서의 난관의 증대는 불가피적으로 더욱더 많은 자본과 로동력이 상업 및 봉사 기관들 그리고 관료, 군사, 경찰 기구의 확충에 돌려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러한 비생산적 분야들은 계속 팽창되고 있다. 결과 비생산 분야들에 종사하는 자들은 지금 전체 로동력의 60 ~ 62%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의 비중을 훨씬 릉가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은 국가 기관의 공무원이 매달 평균 2,600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1964년 첫 7 개월 간에는 련방 정부 기관들의 종업원들만 하여도 1만 8,339 명이 늘어 났다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 구조도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본과 로동력이 생산 분야에 투하되는 경우 그 대부분은 군수 생산 부문들에 집중되고 있다. 독점 자본은 거듭되는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하며, 유휴 상태의 생산 능력들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생산의 《앙양》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또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것은 민수 생산 부문들을 희생으로 하여 일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소위 《국민 총생산액》에서 군수 생산이 차지하는 몫은 1947년에는 8.0%, 1956년에는 14.0%, 1958년에는 15.5%로 각각 높아졌다(2 차 대전 개시 이전인 1939년에는 그것이 1.9%였다).

개별적 생산 부문들을 놓고 보면 해당 부문 생산량에서 군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 1963년

현재 항공기 제작 공업에서는 94%, 조선업에서는 61%, 전기 기계 생산에서는 21%의 생산물이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였다.

현대적인 최신 과학 기술의 제 성과도 군수 생산 부문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핵물리학, 화학, 수학, 력학, 전자 공학 등 과학 부문들에서의 귀중한 성과들은 독점의 수중에 전적으로 횡취됨으로써 원자 무기, 로케트 무기 등을 생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이렇듯 경제의 군사화는 전쟁을 위한 무기 및 기타 군수 물자들의 생산에 복무하는 거대하고도 전일적인 경제 체계를 수립하였다. 경제의 군사화로 말미암아 사회의 재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 및 기타 경제 제 부문들 간의 유기적인 련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군수 물자의 실현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일정에 제기되고 있다. 생산된 군수 물자의 실현—그것은 인명을 살상하고 물질적 재부를 파괴하는 전쟁이 없이는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 미국 독점 자본이 집요하게 감행하는 전쟁 정책의 물질적 기초는 바로 이러한 경제의 부단한 군사화에 있는 것이다. 경제의 군사화는 비록 일시적으로는 생산의 장성을 자극할 수도 있였으나 조만간에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며 상시적인 전쟁 소동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군수 생산 부문의 팽창, 경제의 전면적인 군사화 그리고 독점 자본의 전쟁 정책은 미국 경제의 극도의 기형화와 취약성을 증시할 따름이다.

독점 자본의 부패는 그의 기생주의와 불가분리로 통일되여 있으며 사회적 생산물과 로동력의 극도의 랑비와 탕진을 동반한다. 독점 자본의 부패를 생동하게 보여 주는 이 측면은 미국 독점 자본에게 있어서 특히 다양하고도 추악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사회의 한 극에서는 미국 전체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 기아와 반기아적 상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사회의 다른 극에서는 막대한 사회적 부가 아무런 유용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회적 기생충들, 금리 생활자들, 독점 자본가들의 수중에로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 그들의 저속하고도 퇴폐적인 취미와 향락을 위해 탕진되고 있다. 이른바 악명 높은 《미국식 생활 양식》도 독점 자본이 탕진하고 있는 수십 수백억금의 딸라를 물질적 밑천으로 하여 《개화》되면서 그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있다. 실례로 석유 왕 록펠러 일가의 유력자인 윈스로프 록펠러(뉴욕주 지사인 넬슨 록펠러의 형이다)는 자기의 처와 리혼하기 위하여 《위자료》로서 640만 딸라를 썼으며 3,000만 딸라를 내걸고 다시 어떤 박사의 처를 빼앗아 냈다 한다. 1년 간 한 세대의 소득을 3,000 딸라로 친다면 이는 무려 1만 2,000여 세대의 1년 간 생활비에 대등한 금액을 《처 흥정》에 써 버린 것으로 된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 속에서는 개, 고양이 등을 기르면서 거기에 더 고가한 장식을 하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관습처럼 널리 류행되고 있다. 어떤 부자의 처는 자기의 개를 기르는 데 무려 1만 5,000 명 로동자의 1년 간 로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였으며 개에 목걸이, 잠옷, 외출복들을 갖추어 주었고 개가 죽었을 때는 성대한 《장례식》까지 치렀다 한다.

억만 장자들의 향락과 취미는 이러한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문화와 예술을 무위 도식하는 저들의 권태감을 풀기 위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정상적인 인간의 건전한 두뇌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색정적이고 추잡한 《문화》와 《예술》의 각 가지 종류가 횡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독점 자본의 부패 경향의 이러한 심화는 필연적으로 금융 과두 지배와 반동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게 하고 있다. 최근 년간 미국의 행정부들은 견실한 공산당원들과 로동 운동의 지도자들을 공공연히 탄압하는 수다한 악법들을 조작하였으며 로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등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말살하고 있다. 미국의 인종주의자들은 흑인들에 대한 부당한 폭행을 감행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유린 학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독점 자본은 로동 운동의 대렬을 와해시키며 로동 계급의 전투적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각종 매수, 회유 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어용 로조의 기회주의적인 지도자들과 앞잡이 등 《로동 귀족》들에게 높은 임금과 후한 특권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자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파괴하기 위한 주요한 사회적 지주로 길러 내고 있다. 금융 과두 정치의 지반은 이러한 매수된 사회적 지주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으리 만큼 썩어 버렸기 때문이다.

* *

제국주의 시기 자본주의의 부패와 기생성의 근원은 다름 아닌 독점의 지배 특히 금융 과두의 지배 그 자체에 있다. 본래 독점은 제국주의 시기에 고유한 독점 가격 기구를 리용함으로써 기술적 성과들에 민감하게 의거하지 않고도 고률의 독점적 리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생산에 기술적 진보의 제 성과를 도입하며 생산을 장성시킬 데 대한 문제가 자유 경쟁의 조건 하에서처럼 그렇게 첨예하게 나서지 않는다. 거액의 자본 설비, 원료, 과학 연구 수단과 기술 인원들을 장악한 독점은 저들의 필요에 따라 지어는 과학 기술 상의 새로운 성과들을 고의로 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혹 개별적인 자본가들이 경쟁자를 타승하며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전반적인 사태의 본질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시적이나마 독점 가격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진보와 따라서 모든 다른 진보를 즉 전진 운동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소멸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기술적 진보를 인위적으로 지체시킬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22 권, 360 페지).

그러면 현시기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 경향은 어떠한 요인들의 작용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있는가? 그것은 주요하게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과 해외 자본 수출의 류례 없는 증대들에 기인되여 있다.

제 2 차 대전 후 미 제국주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전형적인 나라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한 나라로 되고 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은 경제의 군사화에 적극 복무하고 있다. 독점체들은 군비를 미증유의 규모로 확장함으로써 막대한 물질적 재부를 탕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 유용 로동으로부터 유리시키는 거대한 사회적 랑비를 조성하며 근로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즉 군비 경쟁의 강화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능으로 되고 있

다.

다음의 수'자들은 미국 예산에서 직접적 군사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급속히 장성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년 도	증가률	예산 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몫(%)
1947 년	100	37
1953 년	361.1	70.2
1962 년	363.3	59.6
1963 년	384.0	59.8
1964 년	414.6	60.7

여기에 간접적 군사비 지출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수'자는 훨씬 더 커진다. 례컨대 1964~1965 회계 년도의 군사비 지출액은 774억 딸라로서 정부 예산 지출 총액의 80%를 차지한다.

이러한 군사비 지출의 대부분은 비록 복잡한 중간 고리들을 거치기는 하지만 결국은 군수 생산의 왕들인 대독점체들의 주머니로 들어 가고 있다. 국가는 예산 자금을 가지고 군수품 주문을 수행하는 독점체들에게 원료, 자재, 로력, 기술 등을 눅은 값으로 제공해 주면서 생산된 군수 물자들은 아주 비싼 값으로 구입하고 있다. 군수용으로 생산된 물자들의 가격은 일반 용품들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여 있으며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독점체들에게는 제품 판로가 항상 《믿음직하게》 담보되여 있다.

그리 하여 미국의 거대 독점체들이 받고 있는 리윤 총액에서 군수 주문 수행에서 얻는 몫은 매우 크다. 실례로 1959년의 개략적인 계산 자료는 500 개 최대 회사들의 납세 후 리윤 총액에서 군수 주문 수행으로써 얻은 리윤액의 비중이 16.8%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만일 그 대부분이 군사 침략적 사명과 결부되여 있는 해외 투자에서의 리윤액의 비중 25.2%를 합한다면 그것은 리윤 총액의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군수품 주문의 수행은 공황 등에 의하여 생산이 감퇴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리윤에서는 손실을 당하지 않거나 혹은 거의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합법칙적인 추세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과 경제의 군사화는 지배적 독점들로 하여금 국가 기구에 적극 의거함으로써 독점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그로부터 높은 고률 리윤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은 독점 자본의 부패를 산생케 하는 경제적 기초를 비상히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의 부패와 기생성은 급속히 증대되는 해외 자본 수출에 의하여서도 심화되고 있다. 제 2 차 대전 이전 시기만 하여도 그들은 자본 수출면에서는 다른 제국주의 렬강들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자본 수출권을 탈취하면서 자본 수출을 대규모적으로 확대하였다. 해외 상품 판매 시장 문제가 첨예화됨에 따라 미국의 자본 수출액은 계속 커 가고 있다. 1963년 현재 사자본의 해외 투자액 660억 딸라, 정부의 해외 투자액 약 210억 딸라를 합하면 그것은 총액 870억 딸라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쟁 전 시기 1939년의 해외 자본 수출 총액을 거의 8 배나 릉가한 것으로 된다.

국내에서는 새 투자가 부진 상태에 있고 광범한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절식 상태에서 헤매이며 생산의 침체와 경제 부문들 간의 불균형이 우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과잉》 자본은 보다 높은 리윤을 위하여 해외에로 방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 수출에 의하여 다른 나라들에서 특히 《후진》 국가들에서 렴가한 로동력과 원료를 리용함으로써 독점 자본가들은 국내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초과 리윤을 짜 내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이 해외 자본 수출에서 얻고 있는 리윤액은 매년 평균 약 140억 딸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의 가장 중요한 착취 대상은 아세아, 아프리카 등 소위 《후진》 국가들이다. 그들이 이 지역 나라들에 투하한 자본의 리윤률은 30 ~ 100% 혹은 그 이상에 달하고 있다. 미국 본국에서의 리윤률이 10 ~12%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문'자 그 대로 강탈 행위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원조》 역시 군사 침략 정책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본 수출의 특수한 국가 독점적 형태로 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원조》를 미끼로 하여 그것을 받는 나라들의 경제 명맥을 완전히 틀어 쥐려 하고 있으며 《원조》액보다 수 배나 더 많은 리득을 긁어 내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실례만 들더라도 그들은 그간 35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준 대신 100억 딸라 이상의 재부를 략탈해 갔다.

이리 하여 미국 독점 자본은 수억만 다른 나라 인민들의 《등에 업혀》 그들의 피와 땀을 빨아 먹으면서 살지고 있는 현시대의 가장 큰 국제적 착취자로, 강도적인 고리 대금업자로, 금리 생활자로 되고 있다.

* *

미국에서의 독점 자본의 가일층의 부패는 그들의 대내외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지배적 독점 세력들은 부패의 심화와 첨예화되는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국가 독점적 착취 체계의 《보강》, 정치적 반동과 파쑈화 그리고 특히 군비 경쟁과 전쟁 도발 행동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지금 전면적인 핵 전쟁 준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도처에서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감행하는 모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전후 미국 독점 자본의 력사는 이러한 전쟁 도발 책동으로 일관되여 있다. 부패와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그들의 전쟁 책동도 보다 악랄하여지고 있다.

최근 시기 그들은 동남 아세아 지역에서 범죄적인 침략 행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적대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실은 독점 자본이 부패하면 할수록 미 제국주의가 인류의 사회 경제적 진보에 대한 흉악한 반동으로 전화되고 있으며 더욱더 새 전쟁의 주되는 위험으로, 화근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그것은 또한 미 제국주의가 자기 운명을 다 산 극도로 취약하며 몰락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오늘 미 제국주의의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 이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회 경제적 전진 운동이 제기하는 절실한 요구로 되고 있으며 진정한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숭고한 투쟁 임무로 되고 있다.

전 세계 인민들이 굳게 단합하여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 때 미 제국주의의 전쟁 정책은 반드시 분쇄되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가혹한 고리대 착취

지 한 석

남조선 농촌에 부식되고 있는 고리대 착취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오늘 남조선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민족해방 혁명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아직도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와 함께 고리대 착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 고리대는 농업 소득의 막대한 부분을 농민 경리로부터 리탈시킴으로써 남조선의 농업 생산력을 파괴하고 농민 생활을 극도로 령락시키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가 남조선 사회 경제 발전의 질곡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농민들에 대한 각종 고리대 착취는 금지되여야 하며 농민들이 진 토지 채무와 빈농민들의 일체 부채는 페기되여야 한다. 남조선 농촌에서 봉건적 관계의 청산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길을 열어 주며 농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 공업의 발전에도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 관계를 분석 비판하는 것은 오늘 남조선 농민들을 각성시키며 인민들을 남조선에서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민족 해방 혁명 수행을 위한 투쟁에 궐기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1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 고리대 착취는 봉건적 지주 토지 소유에 기초한 소작 제도와 함께 봉건적 착취 체계의 기본적 형태로 되고 있다.

지주, 부농을 비롯한 남조선 농촌 고리대업자들은 미제와 괴뢰 도당의 비호하에 농민들을 채무 노예의 사슬에 얽어매 놓고 그들의 고혈을 짜 내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이러한 착취 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다.

본래 고리대 착취는 고리대 자본의 기능 형태로서 그것은 상품 및 화폐 류통의 발전과 함께 소생산의 부단한 령락 파산에 기초하고 있다.

《리자부 자본의 특징적 형태로서의 고리대 자본은 자기 로동에 의하여 생활하는 농민과 소수공업 장주(匠主)의 소생산의 우세에 상응하는 것이다》 (맑스 《자본론》 제 3 권, 2 분책, 184 페지).

자연 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소생산은 여러 계기들 즉 불의의 재난과 비상 사고, 착취 계급들의 수탈로 말미암아 부단히 파산 령락된다. 소생산의 부단한 령락과 파괴는 필연적으로 소생산자들의 절박한 자금적 요구를 촉발시킨다.

소생산의 부단한 령락과 파괴—이것이야말로 고리대 자본이 기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으로 된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 고리대 착취가 성행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 년 간에 걸쳐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한 식민지 략탈 정책은 고리대가 성행할 수 있는 광범한 사회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 2 차 세계 대전을 통하여 일정하게 장성하였던 미국 농업 생산은 공업 생산과 함께 전후 자본주의 시장의 협소화와 국내 근로 인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축감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만성적 과잉 생산 공황에 빠지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수탈의 중심을 상품 시장화에 두였다.

즉 그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과잉 상품의 실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미국 독점 자본의 리윤을 보장할 것을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그 주구들을 조종하여 남조선의 경제 특히는 농업 생산을 더욱더 파괴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 시기부터 자기들의 괴뢰들을 통하여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완전히 틀어 쥐고 그를 자기의 군사화 정책에 유리하게 재편성하는 한편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였으며 농촌에서 봉건적 지주 제도를 보존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실시한 이러한 식민지 략탈 정책은 고리대 착취를 조장시켰다.

우선 그것은 남조선 민족 경제를 파탄시킴으로써 생산 자본의 고리대 자본에로의 전화 과정을 촉진시켰다.

남조선에서 《농지 개혁》을 실시한 이후의 농촌 현실은 그의 실례로 된다. 남조선 농촌에서 지주들은 미제가 실시한 기만적인 《농지 개혁》을 통하여 막대한 토지 대금을 획득하였다. 이 지주들 중의 일부는 미제와 괴뢰 도당의 《특혜》 조치에 의하여 《적산》을 《불하》받아 산업 자본가로 전화되였으나 대부분의 지주들은 그렇게 되지 못 하였다.

공업과 생산 분야에 손을 뻗칠 수 없게 된 지주들은 토지 대금과 봉건적인 고률의 지대를 통하여 획득한 자본을 화폐 또는 비료, 쌀 등의 상품 형태로 고리채화하게 되였다.

고리대 자본의 형성 과정은 남조선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진행되였다.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산업에서의 자본 투자의 길이 막힌 조건 하에서 도시의 자본가들은 중간 상인으로 또는 고리대업자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주로 춘궁기에 농민들의 절량 상태를 리용하여 고리대 착취의 손을 뻗쳤다.

다음으로 그것은 남조선에서 농민 경리의 극심한 령세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고리대 착취가 성행할 수 있는 지반을 만들였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와 제국주의적 략탈의 2중적 중압은 남조선 농촌 경리를 여지 없이 파괴 령락시켰다.

남조선의 농호 당 평균 경지 면적은 1944년에 1.11 정보이던 것이 1960년에는 0.86 정보로 축감되였다. 같은 기간에 0.5 정보 미만의 토지를 경작하는 극빈농가는 약 33만 2천 호나 증가하여 1960년에 총 농가 호수 중 1 정보 미만의 토지 경작 농가는 73%, 0.5 정보 미만의 토지 경작 농가는 42.9%에 달하였다.

농가 수지 동태는 한심한 형편이다. 1958~1960년 자체 농업 소득에 의한 생계비의 충당액은 0.5 정보 미만의 토지 경작 농가가 41~50%이며 토지 경작 면적이 좀 많다고 하는 1.5~2 정보의 토지 경작 농가들도 85~90%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남조선 농민의 70~80%가 자기의 힘으로 농사할 수 없으며 극심한 기아와 빈궁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바로 이러한 농민 경리의 령세화, 농민 생활의 빈궁화는 남조선 농촌에 고리대가 밀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영농과 생활의 긴박한 자금의 수요는 농민들로 하여금 고리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이 남조선 농촌에서 고리대 착취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2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 고리대 착취가 전례 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리대 자본이 낳는 리자는 그의 비생산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경제적 한계가 없이 비률이 높은 데 특징이 있다.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리대 자본의 리자률은 화폐 수요자의 지불 능력 또는 저항 능력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한계도 모른다.

오늘 제국주의의 식민지 및 예속국에서의 고리대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띠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에는 이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가 가혹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조선 농촌에서는 리자률이 년평균 90~100%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동서 고금에 드문 사실이다.

리자률과 함께 그 형태에 있어서도 가혹성을 띠고 있다.

남조선 농촌의 고리대 형태는 대체로 현물 고리대와 현금 고리대로 구분된다. 현물 고리대에는 주로 현물(비료, 종곡, 식량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색거리》, 《장리》 등이 속하며 현금 고리대에는 화폐 형태로 제공되는 《변'돈》, 《보리'돈》, 《체계 제도》 등이 속한다. 이 두 형태의 고리대에서 현물 고리대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고리대 총액의 60%를 점하고 있으며 그 역시 거의 전부가 《장리'벼》, 《색거리》, 《곱배기》 등을 위주로 한 식량 고리대로 되고 있다.

고리대에서의 현물 고리대인 식량 고리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농민들이 자기의 농업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남조선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그 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는 현물 고리대 형태가 우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상환 기간이 극히 짧다.

남조선 농촌 고리대는 그 상환 기간이 대체로 수개월 간에 불과하다.

괴뢰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58년에 고리대의 60~70%가 《3~4월 보리'고개》로 불리는 춘궁기에 집중되여 있었고 그의 상환 기간은 거의 모두 6~7 개월로서 추수 직후인 11월과 12월에 상환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는 그 규모와 포괄 범위가 방대한 데 특징이 있다.

남조선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부채는 매년 약 20억 원의 폭을 가지고 장성하고 있다. 《군사 정변》 이후 남조선 농민 부채액은 1960년에 비하여 50%나 장성하였다.

남조선 농민 부채의 대부분은 개인 고리채이며 부채 총액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 고리채는 남조선 농가의 90%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이러한 고리대 착취 현상은 농업 생산력과 농민 생활의 파괴 령락 과정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시기 남조선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 현상들은 더욱더 가혹성을 띠고 나타나고 있다.

현재 남조선 농촌에서는 고리대의 보다 혹독한 형태인 《립도 선매》, 《립맥 선매》와 《청전 매매》, 《혹전 매매》 등이 광범히 성행하고 있다. 이 고리대는 불과 2~3 개월 동안에 100% 이상의 리자를 낳고 있다. 이 고리대 형태를 통하여 도시의 매점인 또는 중간 상인들이 농업에 침투하여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들을 더욱더 령락시키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농촌 고리대가 전례 없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이러한 고리대 착취는 봉건적 소작 제도와 함께 남조선의 농업 생산력 발전과 사회 경제 발전에 저애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고리대는 생산 방식을 변경시키지는 않고 기생충으로서 이것에 붙어 빨아 먹고 이것을 비참하게 만든다.

고리대는 생산 방식의 고혈을 빨아 먹으며 이것을 쇠약케 하며 재생산이 점점 더 비참한 제 조건 하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맑스 《자본론》 제 3 권 2 분책, 186 페지).

남조선 농촌에 창궐하고 있는 고리대 총액 130억 원의 리자률을 60%로 추산한다 하더라도 년간 70~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농업 소득이 농업 생산으로부터 유리되여 고리대업자의 수중에 흘러 들어 가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남조선에 농업 생산력과 농민 경리가 여지 없이 파괴 령락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남조선에서 농업 생산력과 농촌 경리의 파괴 령락은 중세기적인 농기구에 의한 손로동의 지배, 토지의 황폐화, 시비량의 감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는 호미와 낫, 보습 등이 기본 생산 수단으로 되고 있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수 많은 농경지가 매몰, 류실되고 있다. 지난 19년 간에 남조선에서 매몰, 류실된 토지만 해도 130만 정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병충해로 말미암아 해마다 농작물의 수확고가 감소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생산력의 극심한 파탄은 농민들의 생활을 령락시키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리농하는 현상이 증대되고 있으며 해마다 절량 농민들의 수가 늘어 가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절량 농가는 140만 호에 달하였다.

남조선 농촌의 이러한 현실은 남조선 농민들의 불평 불만을 증대시켰다.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제는 남조선에서 뒤흔들리는 식민지 통치 지반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음흉하고 교활한 책동을 꾸미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제의 조종 하에 박 정희 도당은 《농어촌 고리채 정리》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들고 나왔다.

박 정희 도당의 이 구호가 허위와 기만에 찬 구호라는 것은 명백하다.

남조선 괴뢰 정권이 조작한 《고리채 정리법》의 내용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고리채 정리법》에는 년 리자률 20%를 넘는 개인 고리채를 년 리자률 20%의 《공채》로 대체하며 5년 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농어촌의 고리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

개인 고리채와 대체하겠다고 하는 《국채》의 리자률이 20%로 규정되고 있는 사실은 고리채의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리채 정리법》에 의하면 또한 농어촌 고리채 총액 130억 원 중 그의 4분의 1도 못 되는 28억 원만을 《정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나머지 100억 원은 그 대로 방임해 두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고리채 정리법》은 농업 생산력 발전과 농민 생활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 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의 고리채 문제는 남조선 농민들의 절박한 자금난을 고리대에 의거함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자금적 담보를 주는 것으로써 정리되여야 한다.

그러나 매국 배족 책동만을 일삼고 있는 남조선 위정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

오늘 극심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박 정희 《정권》은 농민들의 긴박한 최소한의 영농 자금마저도 대 주지 못 하고 있다.

1962 년도에 그들이 농촌에 《방출》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어 댄 《영농 자금》은 76억 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농촌에서 최소 한도의 소요 영농 자금액의 절반도 못 되는 적은 수'자이며 그것마저 제때에 대 주지 않았다. 1963 년도 영농 자금 방출액은 또다시 축감되여 약 40억 원으로 되였다.

남조선 괴뢰 정권이 약간의 영농 자금을 농촌에 대 준다 해도 그 대부분을 지주, 부농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조작해 낸 《고리채 정리법》의 략탈적 성격은 영농 자금을 가혹한 방법으로 회수한 사실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1962년 4.4 분기에 영농 자금 및 비료 대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농촌으로부터 86억 원을 회수하였다. 이것은 그가 집권한 후 1962년까지 영농 자금의 명목으로 농촌에 대부한 자금 총액을 일시에 회수한 것으로 된다.

그들의 이러한 농촌 자금 회수 책동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다. 박 정희 도당이 농민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한 후 농민들이 《소 값이 돼지 값이 되고 돼지 값이 개 값》이 되였다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제반 사실은 미제의 조종 하에 들고 나온 박 정희 도당의 《농어촌 고리채 정리》라는 구호가 날로 증대되는 남조선 농민들의 불평 불만을 무마하며 자기들의 뒤흔들리는 정치 경제적 지반을 유지해 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력사는 착취자들이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꾸며 내는 그 어떠한 책동도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그것은 실패로 끝 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이 꾸며 낸 모든 책동이 바로 그러하였다.

오늘 남조선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표방하고 있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 책동 역시 파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남조선 농민들은 지금 《고리채 정리에 의하여 얻은 것보다 손해가 더 많다》고 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정권의 농촌 략탈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농민 생활을 개선하려면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에서 철저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일체 고리대는 법적으로 금지되여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남조선의 농업 생산력 발전과 령락된 농민 생활 개선을 위한 길을 열어 준다.

남조선에 미제가 남아 있고 괴뢰 정권이 통치하는 한 철저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과 고리대 착취 관계의 청산은 있을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그 주구들을 청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투쟁 과제이다.

남조선 농민들은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를 남조선으로부터 몰아 내고 그 주구들을 청산하고야 말 것이며 이미 북반부 농민들이 걸어 온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할 것이다.

싸우는 아프리카 문학

하 수 흥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폭풍은 수 세기를 두고 아프리카를 짓누르던 암운을 헤치고 《암흑의 땅》으로 불리던 이 대륙에 광명의 길을 열어 놓았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새로운 아프리카의 건설을 위하여 일떠선 아프리카 인민들이 신구 식민주의의 온갖 장애를 짓부시면서 노도와 같이 이 길을 달려 나아가고 있다.

듣느냐 저 오랜 놋쇠의 부르짖음,
다급히 울리는 징소리를,
듣느냐 우리의 분노의 노래,
용맹과 사랑의 노래를!
노래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는 힘을.
…
자유의 뜨거운 해'별으로
눈물의 바다는 말라 버린다.
일어 나라 형제들아! 그대들은 보리라
콩고, 검은 아프리카의 심장을,
다시는 남의 손에 매이지 않는
우리네 청춘의 조국을!

미제와 그 주구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된 아프리카의 참다운 아들이며 콩고의 열렬한 애국자인 루뭄바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새날을 노래하였었다.

진보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아프리카 문학은 인민들의 투쟁과 승리를 노래하고 그들의 전진을 고무하면서, 대륙의 새 력사를 반영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어제는 아프리카가 그러했듯이 세계의 주목 밖에 있던 이 청소한 문학이 오늘은 대륙의 새 기상을 안고 세계 문학에서 당당히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아프리카 문학은 아랍 계통과 흑인 계통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주로 흑인 문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아세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전투적인 문학과 함께 아프리카의 진보적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이 적지 않게 소개되였다. 그것은 우리와 지리적으로나 력사적으로 먼 아프리카의 문학을 리해하며 아울러 그곳 인민들의 소박하고 열렬한 정신 세계와 생활을 리해하는 데 일정하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은 무엇보다도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원쑤들에 대한 끝 없는 증오, 투쟁에 대한 힘찬 호소로 하여, 전투적이며 진취적인 기백으로 하여 우리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 문학에서 보게 되는 이런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특징은 곧 그 작가들의 진보적인 견해와 사실적인 창작 태도를 말해 준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 낸 아프리카 대륙의 참담한 현실을 정면으로 보며, 또한 투쟁으로써 침략자를 타도하고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여야 하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력사적인 사명을 리해함으로써만 그러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진보적인 아프리카 작가들은 이와 같이 현실과 인민들의 투쟁을 자기들의 창작에 진지하게 반영하면서 바로 그것으로 자신들이 또한 투쟁의 거류 속에 투사로서 자랑스럽게 서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언어의 문학들을 아프리카 문학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부를 때, 그것들이 같은 대륙에 존재한다는 지역적 표징 뿐 아니라 더 많이는 이 문학들에 공통한 이런 전투적인 특징을 념두에 두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투쟁과 떼여 놓고 아프리카 문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그것은 그 문학이 걸어 온 길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아프리카 흑인 문학의 력사는 청소하다.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20 세기에 들어 서서야 발생하였다.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은 고대 문명의 자랑스러운 개화를 이룩하였었고 유구하고 재능 있는 구전 문학의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식민주의 기반 하에서 더 일찌기 글문학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 당하여 왔다.

짧은 력사이기는 하지만 흑인 문학은 간고하면서도 승리적인 발전 행로를 거쳐 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디에서나 그런 것처럼, 아니 그 어디에서보다도 더 혹독하게 아프리카 흑인들을 압박하고 착취하였으며 정치적으로 무권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몽매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문화 유물을 략탈하고 그 전통을 질식시켰으며, 식민지 인민들을 문명의 혜택 밖에 얽매 두고 그들의 민족 교육과 어문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며, 문학을 포함한 일체 민족 문화 창조의 조건을 박탈하였다.

비로소 20 세기 초에야 아프리카의 애국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식민지 통치자들의 탄압을 무릅쓰고 문학 창작이 시작되였다. 그들은 앙양되는 민족 해방 운동의 사상적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작품에 외래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자기 인민의 비참한 노예 생활과 인민의 가슴 속에 끓는 반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였으며 민족 의식의 각성을 호소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작가로서 시인 아브둘 카셈 빈 쟈말디니를 들 수 있다. 1907년의 아프리카 인민 봉기를 취급한 력사시 《마지마지》와 기타 많은 작품들에서 그는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인민의 반항과 봉기 지도자에 대한 인민의 흠모의 정을 묘사하였다.

흑인 문학의 선구자들은 한편 민족 문화의 전통을 되살리고 민족의 말과 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인민들 속에서 문화 계몽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민족어로 신문, 잡지들이 발간되였었다.

이에 당황한 식민지 통치자들은 이들 애국적인 지식인들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는 한편 어용 문화 및 교육 기관과 종교 단체들을 통하여 민족 허무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온갖 퇴폐적인 부르죠아 문학 조류를 류포시켰다.

식민주의자들과 통치층 및 반동 작가들이 끌어 들이는 퇴폐적인 문학 조류(비록 아프리카 문학에서 주도적인 것은 못 되지만)를 반대하는 진보적인 작가들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준비 위원회 위원장 시빠이는 대회에서 한 자기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우리의 기본 문제와 우리가 가는 길은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사람의 그것과 전혀 상반된다…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 인민들의 력사와 오늘과 래일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는 투쟁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우리에게 있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문제'거리로 될 수 없다…》

식민주의자들의 발광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새로운 문학은 그 작가 대렬이 날로 확대되였으며 인민들 속에서 더욱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되였다.

그러면서도 일련의 나라의 량심적인 작가들에게 있어서 의연히 창작적인 고충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남아 있은 문제는,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민족어문의 발전이 억제 당하였으므로 민족어가 아니라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종주국의 말로 창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주민의 절대 다수가 문맹자여서 문학 작품이 인민들 속에 침투되는 길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였다.

이 애로는 오늘도 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글 아는 사람이 1%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일련의 독립한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불어, 영어, 포도아어 등을 서사어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작가들은 민족어를 발전시키고 더욱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한편 부득이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조건에서도 민족적 풍격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년 시인 릴리뉴 미캐야의 작품에서 보게 되는 민요적 운률과 향토적 정서가 그 한 례로 된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특히 1950 년대에 아프리카에서 민족 해방 운동은 일층 고조되였으며 투쟁의 불'길이 온 대륙을 휩쓸었다. 이것은 아프리카 문학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시기로 되였다. 투쟁 속에서 새로운 작가군이 형성되였으며 창작은 사상 예술적으로, 량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리 하여 현대 흑인 문학의 기초가 쌓아졌다.

이미 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진보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대표되는 아프리카 흑인 문학은 작품에 일관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열렬한 지향으로 하여 독자의 심정을 울린다.

그것은 바로 이 자유가, 노예의 멍에를 쓰고 수백 년 동안 참혹한 생활의 길을 더듬어 온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결같은 념원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것을 인민들의 얼굴에서 읽고 신음 소리에서 듣고 가는 곳마다에서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에게서 느끼고 자신의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제게르의 창작을 들고 보자. 제국주의 기반 하의 케니아의 암담한 현실을 폭로한 그의 《태양 아래》는 작품 전체가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분노의 기소장으로 되고 있다. 침략자를 단죄하며 자유를 호소하는 그의 격렬한 감정의 발로는, 다름 아닌 양몰이 노예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투쟁 대오에서 전투적인 세례를 받았으며 독학으로 글을 배워 작가로 된 자신의 간고한 생활 체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자유에 대한 절절한 감정은 작가들의 개개의 작품에서 식민주의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주구들의 용서 못할 죄행에 대한 폭로로, 원쑤들에 대한 증오로, 온갖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 있는 아프리카의 넋에 대한 례찬으로, 투쟁에 대한 호소로 전개되고 있다.

버너디디의 자서전적인 장편 소설 《클렘버에》는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아동들에게 《베푸는》 노예 교육의 리면과 잔악한 인민 탄압 책동을 폭로하면서, 한 흑인 고아가 그들의 온갖 괴임과 강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도리여 그들에게 항거하며 마침내 투쟁 대렬에 들어 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소설은 식민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인민들의 각성을 막지 못 하며 자각한 의지를 꺾지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련의 작가들은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 남긴 죄악적인 후과에 대하여, 놈들이 그 곳에 건설해 놓은 도시의 부패한 생활을 통해서도 폭로하고 있다.

젊은 소설가 씨프리안 에크벤지가 쓴 장편 소설 《도시 사람들》은 청춘의 희망을 안고 도시로 나간 한 청년의 운명을 통하여 퇴폐적인 부르죠아 생활과 문화의 웅거지인 도시가 흑인들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다 주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이 보고 겪은 도시 생활은, 흑인들에게는 기아와 질병과 집 없는 생활을 주고 《문명》의 향유자들에게는 방탕과 쾌락을 주는 모순의 집적이였다.

세네갈의 오랜 작가 아브둘라이 싸드쥐가 쓴, 한 흑인 녀성의 운명을 취급한 장편 소설 《마이무나》도 수 많은 녀성들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대도시의 《화려한 생활》을 가부장적 농촌 생활과 대비시키면서 폭로한 작품이다.

자유의 갈망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요구한다. 모잠비크의 현대 시문학의 선구자인 루이 데 노로니야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오 아프리카, 잠자는 노예여!
울려 퍼지는 저 진보의 웨침을 들어라—
《오 아프리카여, 때가 왔다!
일어 나 행동하라!》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에서 울리는 투쟁에 대한 호소는 우에서 본 것처럼 원쑤에 대한 증오로 안받침됨으로써 더욱 격동적이며 승리의 신념으로 충만되여 있다.

말리 시인 마마두 골로고는 아프리카를 휩쓰는 혁명의 폭풍우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아프리카 상공에 울부짖는 폭풍우여!
나의 알몸뚱이를 그 대로 드러내노니
너의 이글이글한 대기의 물'결로
이 몸을 깨끗이 씻어 다오,
착취와 압박과
횡포와 재난의 질곡 속에
천백년 내려 오던
고난과 치욕의 멍에를
네 거세찬 물'결로
산산이 부셔 다오.

이러한 자유, 이러한 투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조국의 번영을 위한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념원한 것이다.

아프리카 작가들의 어떠한 주제, 어떠한 내용의 작품을 읽든 우리는 그 구석구석마다 스며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애착, 그 자연과 인민과 그들의 풍속에 대한 살뜰한 정을 느끼게 된다.

1962년에 서거한 시인 로버트 샤아반의 작품들은 그것이 식민주의자들의 비인간적인 죄행을 격분으로 규탄하는 시인 경우에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정치적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에서 작가들의 관심은 조국을 찾은 인민들의 환희와 새로운 생활을 보여 주는 데 보다 많이 쏠리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피로써 다시 찾은 조국, 쟁취한 독립에 대한 기쁨을 작가들은 인민들과 더불어 노래하고 있으며, 그런 드높은 감정으로 그 땅 우에 새 생활을 창조하고 다시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경각성 있게 수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름답게 꽃피누나,
땅이여!
내 손'길 닿기를
그대는 기다리누나.
그대는 나의 땅!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대는 나의 땅—
황금의 땅이여,
약동하는 대지여!

많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오늘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며 나아가 조국의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행복한 래일에 대한 념원으로 표현되고 있다.

카메룬 작가 몽고 베티는 장편 소설 《왕의 질병의 기적적인 완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종교적 침략과 지방 추장의 무능을 단죄하고 아프리카의 전도를 우려하는 두 청년의 형상을 묘사하면서 아프리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갖은 음흉한 방법으로 지방 인민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파멸시키는 《문명인》 선교사 레간과 스물 세 명의 첩을 거느리고 부패한 생활에 젖어 있는 추장—왕은 아프리카의 몰락하는 과거를 대표하고 있으며, 두 청년 크리스토프와 비람은 이런 현실에 격분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미래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작가는 과거의 불가피한 사멸을 예고한다. 한편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두 청년의 견해를 대립시키면서 각이한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크리스토프는 낡은 세력과의 적극적인 투쟁을 주장하며 인민들의 단결과 강력한 당의 결성을 계획하는데, 비람은 돈 있는 자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황금을 축적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비록 크리스토프의 길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보여 주지는 않고 있으나 아프리카의 장래가 서구라파식 《문명》도, 재래의 가부장적 제도도 아님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종족 제도와 모든 낡은 유습도 청산해야 한다는 사상은 벤자민 마티프의 중편 소설 《아프리카여, 우리는 너를 모른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작가는 아프리카의 해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들과 대농장 소유주이며 백인들과 결탁하여 리윤만을 추구하면서 농촌의 낡은 제도를 고집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그리면서, 타락하고 비겁한 상인과 농장주들이 아프리카의 발전에 장애로 되며 그들이야 말로 식민주의자의 비호 밑에서 치부하는 파렴치한들임을 폭로하고 있다. 동시에 작품에는 백인들이 백년 동안에 한 모든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한 해 동안에 해내리라는 굳은 신념과 정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믿음직하게 그려지고 있다.

우리는 선진적인 일부 작가들의 작품에서 아프리카의 래일을 떠멜 힘으로서 로동 계급의 형상을 정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현대 문학에서 일보 전진의 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네갈 작가 우스만 쎔벤은 장편 소설 《마술 지팡이》에서 몇 해 전에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준, 세네갈—수단 철도 로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 투쟁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로동 계급의 완강한 힘을 구체적인 생활 화폭을 통하여 훌륭히 보여 주고 있다. 파업 로동자들은, 총탄을 퍼부으며 흑인 거주 구역의 상업을 봉쇄하며 수도를 막아 버리고 무고한 주민들을 체포 투옥하는 경찰의 야수적인 탄압을 단합된 힘으로 물리치고 마침내 백인 경영주와 황색 로조의 배신적인 지도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작가는 파업 로동자들에 대한 다부문 로동자들의 련대성도 잘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파업 로동자들의 가슴에 고동치는 것이 백인들에 대한 인종적인 증오감이 아니라 계급적, 민족적 원쑤를 반대하는 고상한 애국적인 감정이며 바로 혁명적 당이 그들에게 그런 투지를 안겨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적인 아프리카 작가들의 애국적이며 인민적인 지향은 유구한 민족 문화 유산을 복구 정리하며 그 전통을 자기들의 창작 실천에서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인민들 속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생활 감정과 념원을 더욱 생동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 한 실례로 말리, 가나를 비롯한 서부 아프리카 나라들의 문화일'군들에 의한 그 곳의 문화 유산 발굴 사업은 거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문화 계몽 사업에 작가들이 더욱 헌신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인민의 힘은 무궁하며 더우기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인민의 힘은 불패이다. 아프리카의 주인은 아프리카 인민이며 더는 그 어떤 힘도 이 인민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지 못 한다. 진보적인 아프리카 작가들은 자기 인민들에게, 세계에 이것을 선언하면서, 바로 므 인민들에 의하여 어제'날의 《암흑의 대륙》에 드디어 행복의 락원이 건설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프리카 흑인의 민족적 긍지를 소리 높이 웨치고 있다.

말하라 두려워 말고
말하라 부끄러움 없이
모든 인류 앞에서 말하라
내 아버지와 그 조상들처럼
나는 흑인이라고.
어머니가 흑인이기에
나도 검은 사람, 허나 노예는 아니다.

나는 자유로운 인간, 나의 조국은
아프리카, 나의 조국 만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 인민들의 오랜 투쟁에 의하여 오늘 이 대륙에서는 위대한 력사적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각성한 2억 6천만 아프리카 인민들은 식민주의의 마지막 거점을 쓸어 버리기 위하여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련방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아직 독립을 성취하지 못 한 앙골라, 모잠비크 등 포도아령 식민지들과 기타 지역들에서는 무장 투쟁이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독립을 달성한 많은 나라에서도 나라의 모든 생활 령역에서 식민주의의 자취를 지워 버리며 광명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변천된 조건에서의 새로운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투쟁은 끝 나지 않았다. 그것은 멎지 않고 래일로 뻗어 갈 것이며 작가들의 자유와 투쟁의 노래도 멎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투쟁은 아프리카의 《소생》과 그의 새로운 력사의 원동력이며 아프리카 인민들의 어제와 오늘일 뿐만 아니라 래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작가는 자기의 주인공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투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러 새삼스럽게 리해하려고 애 쓸 필요가 없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절실한 생활 문제로 되여 있기 때문이요》.

진보적인 아프리카 작가들은 자기들의 사상 예술적 시야를 더욱 넓히고 퇴폐적인 부르죠아 문학의 침습과 사상적 영향을 물리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위대한 전환을 자기들의 창작에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 제 21 호 (루계 259 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1월 3일 발행 • 1964년 11월 5일

ㄱ—430647 값 40 전